

캐나다 노동교육(상)

김석규

캐나다 사스카치완 대학 석사과정 · 성인교육전공

口 국과 같이 캐나다의 성인교육에서 노동운동과 관련된 노동교육이 중요한 분야로서 취급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캐나다의 노동교육은 인접한 미국과는 다른 전통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영연방의 일원으로서 영국 노동교육에서 받은 영향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 정치 체제 아래서 캐나다의 노동운동이 좌파 정당인 신민주당(New Democratic Party)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켜왔다는 점이 미국과 크게 다른 역사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캐나다의 노동교육을 살펴봄에 있어서 먼저 캐나다 노동운동의 역사와 현황을 자세히 개괄하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미처 조사하지 못한 관계로 노동교육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간략하게 캐나다의 노동조합의 현황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노조조직률: 32% (1999년 기준)에 달한다. 1960년대에는 60%까지 달하기도 했지만, 80년대 신보수주의 정권 등장 이후 노조조직률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캐나다 노동운동의 노선: 다른 사회운동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조합주의(Social Unionism)으로써 미국 노동운동의 노선인 실리적 조합주의(Business Unionism)와는 양상이 다르다.

- 전국적 노조 조직: 미국까지 포함한 International unions에 30%의 노조가 속해 있고, 나머지는 캐나다 안에 한정된 CLC(Canadian Labour Congress)와 CSN(Confederation des

Syndicates Nationaux; 캐비 주에 국한)에 속해 있다. 교원노조와 병원노조는 각주별로 조직되어 있다.

이 글은 캐나다 노동교육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을 찾기 위한 시도다. 지면상 긴 내용을 쓰기보다는 역사와 현황, 두 부분으로 나눠 핵심 내용만 간추린다. 캐나다 노동교육의 역사는 20세기초의 위니펙 총파업(1919년)과 노동자교육협회(WEA, 즉 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 1917~1951)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Michael Wellington(캐나다 Dalhousie대학의 교수)의 책과 논문들에서 간추린 내용임을 밝혀둔다. 또한 캐나다 노동교육현황에 대한 내용은 캐나다의 전국단위 노조들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과 대학과 연관된 프로그램 중 몇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다. 이와 관련된 참고 자료는 Bruce Spencer(캐나다 Athabasca대학의 교수)를 비롯한 전 보적인 성인교육연구자들의 논문과 인터넷 사이트들에서 찾아낸 것이다.

1. 캐나다 노동교육의 역사

1) 20세기초의 캐나다 노동교육: 위니펙 총 파업(1919년)을 중심으로

캐나다 노동교육의 역사는 노동과 자본의 첨예한 대립을 특징으로 하는 20세기초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캐나다는 독점자본주의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토론토를 중심으로 한 온타리오 주 남부 지역에서는 테일러리즘의 도입에 대한 숙련노동자들의 저항이 있었다. 비숙련 노동자들의 저항도 대서양 연안의 광산노동자들, 태평양연안의 어업노동자들, 캐비 주의 의류노동자들에 의해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노동자들의 파업은 군대의 총칼 아래 무자비하게 진압되곤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시 캐나다 노동운동 안에는 기독교사회주의, 생디칼리즘, 혁명적 박스주의 등 다양한 조류가 지역, 산업, 이민자들의 출신 나라와 뒤섞여 활동하고 있었다.

20세기초의 다양한 캐나다 노동운동 대투쟁들 가운데 캐나다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는 위니펙 총 파업(1919년)을 들 수 있다. 위니펙은 캐나다 서부 대평원지역의 개발과 함께 성장한 중심도시로서 당시 어느 지역보다 많은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캐나다 노동운동사상 대표적인 사건인 위니펙 총 파업(1919년)이 어떻게 노동운동가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조직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가장 중요한 노동교육의

사례는 위니펙의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1910년부터 1917년 사이에 조직한 '인민광장' (Peoples Forum)이라 불리는 일련의 강연과 토론이었다. 그들은 매주 일요일 교회나 국장에 모여 자본가들의 착취를 비판하는 강연과 토론을 조직하였다. 인민광장의 운동가들은 「소리」(The Voice)라는 주간신문을 발행하여 매주 일요일의 강연과 토론품목을 일반 노동자들에게 전파하였다. 인민광장의 활동은 내부 지도자들의 분열로 보다 급진적인 운동가들이 중심이 된 노동자교회(Labour Church)로서 일요강연을 계속한다. 인민광장을 통해 위니펙의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사회주의가 가능하고 필요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때마침, 러시아혁명의 영향 아래 노동교육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는데, 여기에는 1919년 3월 시작된 '하나의 큰 노조' (One Big Union: OBU) 결성 움직임이 노동자 교회와 함께 큰 역할을 한다. OBU는 위니펙에 노동자대학 (Labour College)을 설립하려는 의도를 갖고 경제학과 같은 노동교육 과정을 시작하였다. 이는 192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노동자대학설립운동 (Work Peoples College; 1904~41, Brookwood College; 1921~37, Commonwealth College; 1923~41)과 같이 정

부나 대학의 지원을 받지 않는 노동자 교육 과정을 시도한 것이었다. 결국 노동자교회와 OBU는 위니펙 총파업 실패 이후에 노동자 대학 설립을 본격화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다(캐나다에서 노동자대학은 1963년에야 온건 개혁적인 노선의 캐나다노총 (CLOC)의 주도 아래에서야 가능하게 된다).

그밖에 당시 위니펙에서는 캐나다 사회당(The Socialist Party of Canada, SPC)이 맑스주의 전위당을 표방하면서 임금노동 철폐에 초점을 맞춘 맑스의 자본주의 분석을 주내용으로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민주당(The Social Democratic Party)도 맑스주의 원칙에 근거한 사회민주주의적 개혁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였다. 사회민주당은 캐나다 사회당 보다 대중적인 지지 아래 있었으며, 인민광장과 노동자교회를 통해 대부분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1919년 25,000명의 위니펙 노동자들은 두 달간에 걸쳐 총파업을 벌일 수 있었다. 이 총파업은 노동 교육의 노력과 결합된 결과물이었다. 위니펙 총파업은 캐나다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지지파업으로 지원되었지만, 연방정부가 파견한 군대에 의하여 진압되고 만다. 파업 실패 이후 주요 급진적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투옥되고, 위니펙

캐나다 노동자교육협회의 출발은 노동운동의 급진화를 막고 대영제국의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입장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노동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급진적 노동운동가들의 지도력이 확립되면서 노동운동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변모되게 된다.

에서는 온건 개혁적 노동운동만이 살아남게 된다.

한편, 위니펙 총파업 이후 노동자들 사이에서 급진적인 사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는데, 이는 대학의 사회교육원 (University Extension)과 노동자교육협회(WEA)로 나타난다. 대학의 사회교육원은 1912년 알버타대학에, 1920년 토론토대학에 설립된다. 그 취지는 대학교육이라는 고급문화(higer culture)를 노동자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자본과 노동간의 화해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다. 급진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경험과 언어를 정규교육 과정에서 순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보다 본격적인 온건 개혁적 노동교육 프로그램은 1903년 영국에서 시작된 노동자교육협회(WEA)를 모방한 토론토 노동자교육협회(Toronto WEA)에서 출발한다. 토론토 노동자교육협회는 토론토 대학의 일부교수들이 토론토 지역의 노조지도자들의 협조를 얻어, 토론토대학 사회교육원(Extension Division)에 부설된 교육기관으로 대학교수들만으로 구성된 강사진이 인문교육을 위주로 하

였다.

토론토 노동자교육협회의 설립자중 한 사람인 W. L. Grant는 교육받지 못한 노동자는 모든 새로운 사상에 무비판적으로 헌혹되기 쉽다고 생각했다. 그는 대학교수들에 의해 통제되는 정규교육을 통해서만 노동자들의 비공식적인 학습의 해독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토론토 노동자교육협회 설립에 참여했던 노동운동 지도자들도 역시 정규교육이 보다 편견이 없는 지식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노동자교육이 노동자들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즉, 대학교수들과 노동운동 지도자 모두가 자유주의적인 인문교육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사회와 삶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견해가 존재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education for citizenship)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수들과 노동운동 지도자들과의 생각 차이는 근본적으로 좁혀질 수 없었다. 그 차이는 노동교육 목표에 대하여 사회적 통제와

권력관계의 변화라는 대립되는 것으로서 쉽게 통일될 수 없었다. 그 사례로서 토론토 지역이 아닌 위니펙 지역에서는 위니펙 지역노총의 마니토바대학에 대한 협조거부로 1938년에 이르러서야 노동자교육협회가 설립될 수 있었다. 또한 캐나다 노동자교육협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노동운동 지도자들과 대학간의 불신과 대립이 수시로 표출됨을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어떻게 주도권을 쥐고 캐나다 노동자교육협회(WEA)를 활용해나가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2) 2차대전 전후의 캐나다 노동자교육협회(WEA)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캐나다 노동자교육협회의 출발은 노동운동의 급진화를 막고 대영제국의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입장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노동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급진적 노동운동가들의 지도력이 확립되면서 노동운동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변모하게 된다. 초기에 노동자교육협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자들의 참여동기는 학습적령기에 배우지 못한 노동자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이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노동조합원이었지만, 비조

합원인 점원·사무원·주부 등도 있었다. 특히 주부들은 1920년대 후반에 20~50%를 차지하였는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남는 시간에 영문학이나 심리학, 가정경제학 등을 듣는 계기로 활용하곤 했다. 강의과목은 인문과학만이 아니라 노동법, 협동조합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초기의 토론토 노동자교육협회는 주요 노동조합으로부터 회의적인 반응과 함께 미미한 재정적 지원밖에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토론토대학 사회교육원(Department of Extension)에 크게 의존하였다. 그러나 노동운동과 관련된 과목을 포함하려는 시도에 대한 토론토대학의 반대에 의해 1927년에는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수강생도 400명에서 135명으로 줄어드는 시련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캐나다 노동자교육협회는 대공황기의 실업자교육과 1930~40년대의 대규모 산업노동조합의 등장에 힘입어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되고 교육내용도 노동조합운동에 필요한 노동법, 단체교섭 등을 강화하게 된다. 대공황기에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실업과 빈곤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노동자교육협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교육협회는 크게 성장하였다. 또한 교수진도 대폭

교체되어 좌파적 성향의 자유주의자나 사회민주주의자가 활동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비로소 1937~1938년 학기에는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이른 전국에 걸쳐 29개 지부와 2194명의 수강생을 가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1930년대 캐나다 노동자 교육협회 성장의 지도력은 Drummond Wren에게서 나왔다. 그는 자신이 일하던 업종에 노동조합이 없었기 때문에 조합원은 아니었지만, 1920년에 토론토 노동자교육협회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노동운동에 입문한 인물이었다. 그는 1927년부터 노동자교육협회의 총무로 일하기 시작했고, 1930년에는 카네기재단으로부터 5천 달러의 재정지원을 타내는 수완을 발휘하였다. 카네기재단의 지원은 토론토대학으로부터 노동자교육협회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한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Wren 자신이 급여를 받는 상근자로서 20년 동안 일할 수 있게 하였다.

맨 먼저 Wren은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조합원들을 노동자교육협회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도록 권유하였다. 당시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통계 아래 있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조합원들이 교육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비판적 시각을 가진 조합원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기까지 했다. 그

러나 차차 노동조합원의 참여는 늘어갔고, 1930년대 후반에 이르자 대단위 노동조합들이 노동자교육협회의 프로그램을 자신들의 조합원 교육으로 대신하기 시작하였다. 1937년 오랜 전통의 북미지역 노조인 국제여성섬유노조(The International Ladies Garment Workers Union)와 북미지역 광산노조(The United Mine Workers of America)를 시작으로 일반산업노조(CIO,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 북미자동차노조(The United Auto Workers) 그리고 북미고무노조(The United Rubber Workers)가 그 예이다. 또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노동자교육협회의 임원으로 참가하도록 하는 제안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또한 캐나다 노동자교육협회는 카네기재단의 지원을 받아 노동운동의 이슈와 관련된 영화를 만들기도 하였는데, 그 제목은 '캐나다 노동사', '캐나다 사회사', '의회정치의 과정', '부의 분배에 대하여' 등이다. 1937년부터는 캐나다방송공사(CBC) 라디오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매주 방송강좌를 실시함으로써, 노동자교육협회는 일반인의 인식 속에 노동자에게 친근한 교육기관으로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같은 친노동자 성향은 토론토대학의 사회교육원으로부터 강력한 예산삭감과 이데올로기

적인 비난을 불러일으킨다. Wren은 캐나다 공산당원들과의 협조를 거부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이익을 열렬히옹호하였으므로 공산주의라고 비난을 받지만, 실제로 공산당의 당원도 아니었고 어느 당의 정치적인 노선도 따르지 않았다. 이같은 이데올로기 공격은 곧 발발한 2차대전으로 인하여 중단되고, 캐나다 노동자교육협회는 2차대전 기간동안에 전성기를 맞는다.

캐나다 정부는 전쟁 동안에 노동자들을 전투와 생산에 동원하는데 노동자교육협회를 충분히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노동운동진영 역시 전쟁에 협조하는 대신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신장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노동자교육협회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Wren은 캐나다의 양대 노총인 TLC(Trade and Labour Congress)와 CCL(Canadian Congress of Labour)의 지도자들과 함께 국영라디오방송(CBC)에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방송되는 전국 노동자 광장(National Labour Forum)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도 있었다. 또한 2차대전 중 노동자교육협회는 카네기재단의 지원으로 연구원들을 고용하여 노동법과 노동자 이슈들(세금, 안전, 보건복지, 교통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고 주간잡지를 발행하

여 배포하였다. 특히, 캐나다 국립영화제작소(National Film Board)를 중심으로 1942년 설립되어 1945년까지 지속된 노동조합 순회영화관(The Trade Union Film Circuit)은 영화를 통해서 노동교육을 진행한 좋은 기회였다. 영화의 주제는 파시즘과의 전쟁에 대한 홍보를 비롯해서 노동법, 대의원의 역할과 임무, 노동조합원의 책임 등이었는데, 영화 상영에서 노동조합 순회 영화관은 주제 선택에 대한 전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영화들을 상영하면서 등장한 특이한 교육방법으로서 영화의 끝 부분에 침가된 토론퀁지(The Discussion Trailer)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토론퀁지는 명망 있는 노동운동지도자가 진행하는 5분간의 주제토론 유도용(상영된 영화와 관련된) 짧은 영화를 말한다. 이 토론퀁지에 제시된 주제에 따라 관객들은 토론을 벌였으며, 때로는 패널토론 또는 원탁토론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차대전 종료 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보수적인 노조지도자들이 노동운동과 노동교육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노동자교육협회의 전보적 인사들을 공산주의자로 공격하면서 캐나다 노동자교육협회의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들어 버렸다. 반공주의 마녀사냥의 주

캐나다 정부는 전쟁 동안에 노동자들을 전투와 생산에 동원하는데 노동자교육협회를 충분히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노동운동진영 역시 전쟁에 협조하는 대신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신장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노동자교육협회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도자들은 캐나다 노총(CCL)의 지도자이면서 캐나다연방연맹(CCF, Canadian Commonwealth Federation, 신민주당의 전신)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었다. 당시 CCF는 정치적인 지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캐나다공산당을 공격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반공주의 선봉 이후 노동자교육협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이 중단됨은 물론이고, 노동자교육협회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산주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노동자교육협회의 주간 신문에 게재된 조사연구논문의 내용 일부가 캐나다 공산당지의 내용과 똑같다는 혐의가 발견되기도 하였지만, 노동자교육협회(WEA)의 지도자들은 캐나다 공산당과 실체적인 연계가 없었다. 1951년 노동자교육협회의 이사회에서는 일부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Wren에게 공산주의에 반대한다고 선언할 것을 요구하였다. Wren은 정치적 중립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지만, 이는 자신의 책임을 초래할 뿐이었다. 당시의 노동운동지도자들은 반공주의 마녀

사냥을 통해서 노동자교육협회를 노동조합의 통제아래 두거나 해체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노동교육협회의 지도자의 한사람인 Wren과 같은 이는 냉전의 조류를 해쳐갈 정치적인 감각이 부족하였다. 그는 노동교육이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하며, 대학교수들이 중심이 될 때 교육의 가치 중립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하였다.

그 이후 캐나다 노동교육에서 대학과 연계된 노동교육프로그램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지금은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1970년대 이후 설립된 몇몇에 불과한 실정이다. 캐나다 내에서 대학과 지역노조가 협동하여 노동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은 마니토바대학, 사스카치완대학, 아파바스카대학뿐이다. 1950년대 이후 캐나다 노동교육의 중심은 인적·재정적 기반을 갖춘 전국단위노조에로 옮겨졌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다음 호에는 캐나다 노동교육의 현황을 살피기로 하겠다.(다음 호에 계속) ♦